

# 중국의 동남아 연구와 지식교류 네트워크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 서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제기했다. 동북아를 넘어서 남방·북방 지역을 ‘변영의 축’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중,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나타냈다. 아세안이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서 우리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블루 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9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서 표명되었고, 2018년 8월 28일에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중심 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sup>2)</sup>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나타나듯,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교류 상대국이 되었다. 2017년에 아세안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720만 명에 달해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년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총 교역액이 1,490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어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투자 대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이와 같이 동남아 지역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핵심 지역이자 이미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학계의 동남아 연구를 자극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는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와 연구자 규모, 연구 축적 추이, 학계의 조직률 등과 같은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

---

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사람 공동체와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1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1.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2.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 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5.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9. 중소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12. 신남방 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검색일: 2019년 2월 13일.

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national/national02Page.do> 검색일: 2019년 2월 13일.

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수세기에 걸쳐 동남아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연구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보다 한 발 앞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이것이 중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중국 학계의 동남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학계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sup>5)</sup>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2장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 및 중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와 연구자, 연구기관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동남아 연구 현황에 대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동남아 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지식 교류 네트워크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지식 교류에서 나타난 주요 행위자와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등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중국의 동남아 연구 및 지식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내용이 한국의 동남아 연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 II. 중국-동남아 관계 및 중국의 동남아 연구

### 1. 중국-동남아 관계

청말 중엽에 서방세력이 중국에 진출하기 이전까지,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국제관계는 중화제국(中華帝國)을 중심으로 ‘주변의 오랑개(四夷)’가 조공의식(朝貢儀式)을 하는 ‘천조관(天朝觀)’ 식의 국제 체계였다. 그 후 청말에 이르러 중국 ‘천조(天朝)’ 독존(獨尊)의 국제관계는 무너지고, 중국은 서방의 국제외교 모델에 따라 새로운 국제관계를 건립해야 했다.<sup>6)</sup>

근대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도 대체로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왔다. 중국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중국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아세안(ASEAN)을

4) 전제성,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4호, 서울: 한국동남아학회, 2018, 2쪽.

5) 김선희(2018, 131-152)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아세안(ASEAN)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동남아 전체가 아닌 아세안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에 중국의 연구자들이 중국어로 생산한 연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6) 李道緝,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일전쟁 시기 중국-태국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 80호, 서울: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111쪽.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간주했다. 비록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시각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sup>7)</sup> 소원했던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1979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경제개발을 통한 현대화를 우선적인 국정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발 앞서 경제성장을 이룬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과 서방측의 경제제재 속에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강화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도 했다.<sup>8)</sup>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중국은 1990년 8월 인도네시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고, 동년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91년에는 베트남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적 우호그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축으로 하는 유형과 비동반자 관계를 다른 한축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미얀마와 같은 전통적 우호 국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정재호는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에 대한 편승국가와 균형국가로 구분한 후, 이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순으로 구분하기도 했다.<sup>10)</sup>

2000년대 이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浮上)이 현저해지면, 새로운 강대국 중국과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 사이에 경쟁과 대립이 점차 격화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라는 목적을 위해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중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

전통적으로 동남아는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료가 비축되어 있는 분야일 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인간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시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순치(脣齒)관계를 형성해 왔고, 공간적으로는 서로 인접해 있어 ‘지연(地緣)’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전 세계 화교·화인의 80% 이상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고, 두 지역 사이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여 각별한 ‘혈연(血緣)’을 갖고 있다.<sup>11)</sup>

7) 자오찬성 저, 김태완 역, 『중국의 외교정책: 미사·거시연계 접근분석』, 서울: 오름, 2001, 297쪽.

8) 김진호, 「중국의 대국굴기와 동남아 화상네트워크의 변화」, 『中國研究』, 제43권, 서울: 건국대학교 중국문예연구소, 2008, 478쪽.

9) 이희옥, 「중국의 주변지역전략과 대동남아정책의 새로운 조정」, 『中蘇研究』, 제35권 제2호,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27-29쪽.

10) Jae ho Chung, “East Asia's Responses to China's Rise”, *Pacific Affair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ol.82, No.4, 2009, P.669; 이희옥, 위의 글, 29쪽에서 재인용.

11) 박사명, 「중국 동남아학의 발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제 20권 제3호, 서울: 한국동남아학회, 2010, 4-5쪽.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동남아 관련 연구와 기록을 축적해 왔다. 근대 이후 중국의 동남아 연구는 학계 외부의 정치 환경과 학계 내부의 연구역량을 배경으로 ‘맹아적 동남아학’과 ‘폐쇄적 동남아학’, 그리고 ‘개방적 동남아학’의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맹아적 동남아학’은 정치혼란이 거듭되는 국민정부 시기(1911-1948)에 부상했는데, 당시 중국의 동남아 연구는 여전히 전통적 자국중심주의를 근대적 자국중심주의로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12)</sup>

이어 마오쩌둥(毛澤東)이 군림하는 공산정부 전기(1949-1978)에 출현한 ‘폐쇄적 동남아학’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급진적 정치이념의 도구로서 동남아 연구가 이용됐다. 이 시기,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푸젠(福建)과 광둥(廣東), 광시(廣西), 윈난(雲南) 등 남부지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동남아 연구기구가 증설되고, 베이징(北京) 및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도 역사연구와 화교 연구를 중심으로 동남아 연구가 재개됐다.<sup>13)</sup>

하지만 공산정부 초기 30년 동안, 중국에서 이뤄진 동남아 연구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관한 약간의 통속적 책자와 연사에 관한 소수의 학술적 논문 이외에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국민당 정부 시절의 ‘맹아적 동남아학’보다 학술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sup>14)</sup>

한편, 중국의 ‘개방적 동남아학’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이후(1979-현재)에 발전하게 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국제화되고 대내적으로 현대화된 동남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학의 접근시각과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급속하게 전개됐다.<sup>15)</sup> 이 시기 중국의 동남아 연구는 연구 조직이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수평적 경쟁구조로 재편되었고, 연구 주제도 역사에서 현실로, 정치에서 경제로, 내정에서 외교로 이동했다. 또한 연구방법은 일원적이고 폐쇄적인 접근에서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으로,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에 대한 도식적 강조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전환됐다.<sup>16)</sup>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현재 중국의 동남아학은 연구 기구가 더욱 확장되었고, 연구 성과도 급증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도 분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남아학은 여전히 전통적 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나친 자국중심주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적·학술적 성격보다는 응용적·정책적 성격의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 3. 중국의 동남아 연구 현황

동남아 지역이 중국에게 있어 외교안보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문사회 교류 등 다방면에서

12) 박사명, 위의 글, 8-9쪽.

13) 박사명, 위의 글, 9-10쪽.

14) 박사명, 위의 글, 10-11쪽.

15) 陳喬之 著,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對我國東南亞研究的認識』,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2; 戴可來·王介南,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中國十年來對東南亞的研究』,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2; 于向東, 『中國的越南學研究狀況及其思考』,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輯, 鄭州: 鄭州大學, 2005; 박사명, 위의 글, 12쪽에서 재인용.

16) 박사명, 위의 글, 13쪽.

중요해지면서, 중국의 동남아 연구도 현재 번영기를 맞고 있다.

뤄이푸(罗仪馥)가 국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중국내 사회과학 계열의 주요 학술지(CSSCI) 12종<sup>17)</sup>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동남아 연구는 주로 동남아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와 남중국해 분쟁, 아세안<sup>18)</sup>, 양국 관계, 화교·화인,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또한 개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표 2 참고).

동남아를 연구하는 주요 연구 기관으로는 샤먼(厦门)대학의 남양(南洋)연구원과 동남아연구중심, 지난(暨南)대학의 동남아연구소와 화교화인연구원, 중산(中山)대학의 동남아연구소, 베이징(北京)대학의 동남아연구중심, 윈난(雲南)사회과학원의 동남아연구소, 광시(廣西)사회과학원의 동남아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의 아태연구소<sup>19)</sup>,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의 아태연구소<sup>20)</sup> 등이 비교적 활발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up>21)</sup>

한편, 동남아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55명)<sup>22)</sup>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동남아 연구자는 주로 중년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했고 국제관계학과 역사학을 전공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그림 1 참고).

<표 1> 중국의 동남아 연구 주제 분포 (2007~2017년 논문 대상)

의제 유형	아세안	남중국해	개별 국가	양국 관계	지역 협력	화교	기타	총계
논문 수량(편)	225	185	563	165	31	105	196	1470
비중	15.31	12.59	38.30	11.22	2.11	7.14	13.33	100

출처: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2007-2017年)”, 『战略决策研究』, 第5期, 广东: 广东外语外贸大学, 2018, 83쪽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17) 《世界经济与政治》, 《当代亚太》, 《外交评论》, 《国际政治研究》, 《国际政治科学》, 《国际问题研究》, 《现代国际关系》, 《国际观察》, 《国际论坛》, 《太平洋学报》, 《南洋问题研究》, 《东南亚研究》.

18) 아세안에 대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세안 자체의 발전에 대한 연구, ▲아세안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세안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2007-2017年)”, 『战略决策研究』, 第5期, 广东: 广东外语外贸大学, 2018, 86-87쪽.

19) 현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 글로벌 전략 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의 전신.

20) 2012년 6월에 상하이 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아태연구소(亚洲太平洋研究所)와 동유럽 중·서아시아 연구소(东欧中亚研究所)가 합쳐져 국제문제연구소(国际关系研究所)로 개편되었다.

21) 박사명, 앞의 글,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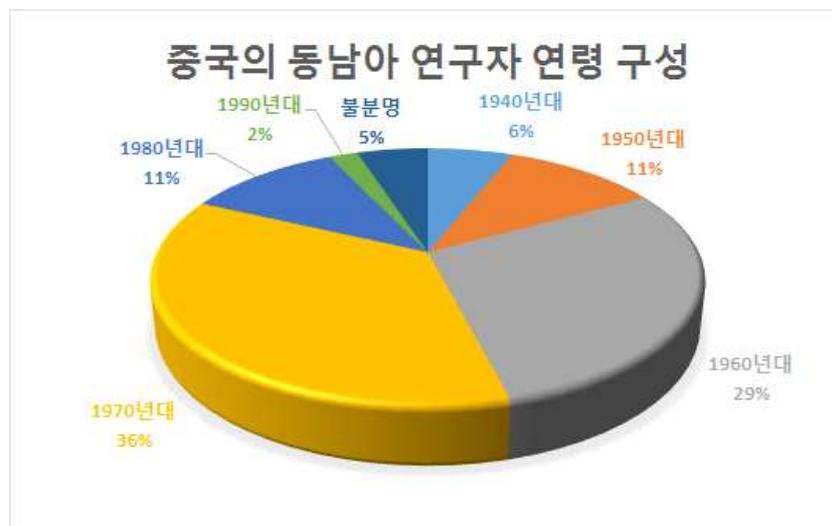
22) 중문으로 동남아 관련 논문을 게재한 천여 명의 학자 중에서, 일회성 연구자를 배제하기 위해 논문 발표수가 상위 55위에 들어가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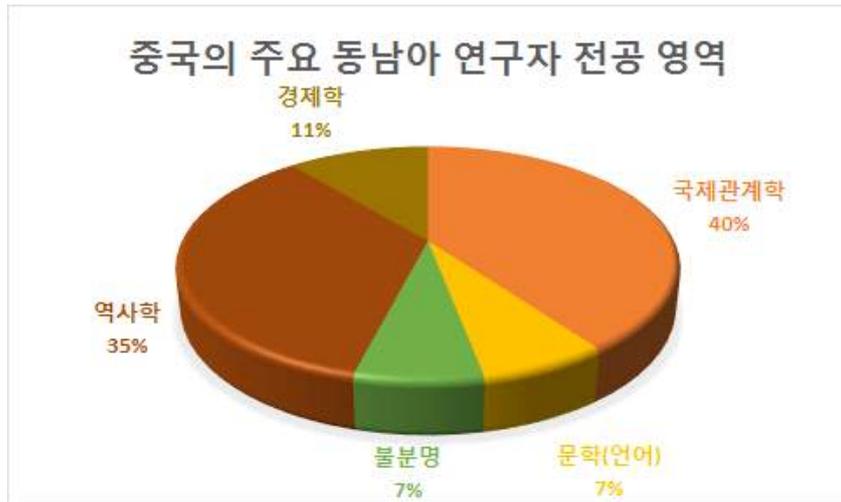
<표 2> 중국의 동남아 국가별 연구 비중  
(2007~2017년 논문 대상)

국가	수량(편)	비중(%)
베트남	100	17.24
태국	90	15.52
인도네시아	89	15.34
미얀마	76	13.1
말레이시아	75	12.93
싱가포르	66	11.38
필리핀	60	10.34
캄보디아	13	2.24
브루나이	5	0.86
라오스	3	0.52
동티모르	3	0.52
총계	580	100

출처: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 (2007-2017 年)”, 『战略决策研究』, 第5期, 广东: 广东外语外贸大学, 2018, 84쪽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1> 중국의 동남아 연구자 연령(출생연도) 및 전공 구성  
(주요 연구자 55명 대상)





출처: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2007-2017年)”, 『战略决策研究』, 第5期, 广东: 广东外语外贸大学, 2018, 93-94쪽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튀이푸는 중국의 동남아 연구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 영역 중에서 동남아 연구는 여전히 변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동남아 연구가 한정된 학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말 문학과 역사에 치중되고 현실 정치와 경제를 경시하던 경향이 어느 정도 극복되긴 했지만,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 영역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남아 자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보다는 중국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동남아 연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3)</sup>

그리고 장샤오신(张小欣)은 1949년부터 1984년까지를 대상으로 중국의 동남아 연구 기구에 대해 분석한 후, 오늘날 중국의 동남아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 대상국에 대한 언어 능력 부족이라고 말한다. 과거 중국의 동남아 연구자들 중에서 현지 경험이 풍부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았지만, 문화대혁명 기간에 이러한 인적 자산이 단절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sup>24)</sup>

또한, 탕스핑(唐世平)과 장제(张洁)는 제도화 측면에 주목하여, 정부 수요와 중국-아세안의 상호 의존, 그리고 대중 매체라는 3가지 요소가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영향을 끼친 3대 주요 요소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연구의 위상을 상승시켰고, 동남아 연구가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의 동남아 연구로 하여금 학술공헌과 정부 수요, 그리고 학술공헌과 대중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게 만들었고, 정부와 대중을 단기적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장기적인 연구 능력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sup>25)</sup>

23) 罗仪馥, 위의 글, 96-98쪽.

24) 张小欣, 「新中国东南亚研究机构的创设与变迁(1949-1984): 以厦、中、暨三校为中心」, 『南洋问题研究』, 第2期, 福建: 厦门大学南洋研究院, 2017, 49-47쪽.

### Ⅲ. 지식 교류 네트워크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인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과거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국가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많은 정보 축적해 왔고, 이것이 중국의 동남아학 발전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비록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이념적 대립이라는 구조 속에서 동남아 연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중국의 동남아 연구는 다시 발전 궤도에 올랐고, 지금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대해서, 최근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기관, 연구자의 특성,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중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 현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사적 서술이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질적 분석이고, 양적 분석의 경우도 단편적인 수치에 근거한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있어서 행위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 교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시각으로써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 방법들이 개체들에게서 측정된 속성의 데이터(attribute data)를 분석한다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개체들 간에 파악된 관계의 데이터(relational data)를 분석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sup>25)</sup>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국의 동남아 연구를 관계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식 교류의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 1. 동남아, 아세안 연구 현황

먼저,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동남아, 아세안(ASEAN)에 대한 연구 추이를 살펴봤다. 중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논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엔진 《CNKI》를 사용하여 1992년부터 2018년까지의 관련 논문을 검색했다. 검색 기간을 1992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한 이유는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1992년부터이고, 가장 최근의 자료까지 포함하기 위해 2018년까지로 선정했다.

검색 조건은 ‘동남아(东南亚)’ 또는 ‘아세안(东盟)’을 키워드로 하는 모든 학술 영역의 논문으로 하였고, 검색 대상은 중문 핵심 학술지(中文核心期刊)와 CSSCI<sup>27)</sup>에 해당하는 주요 학술

25) 唐世平·张洁, 「中国东南亚研究现状: 制度化阐释」, 『当代亚太』, 第4期, 北京: 中国社会科学院亚洲太平洋研究所, 2006, 3쪽.

26)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2012,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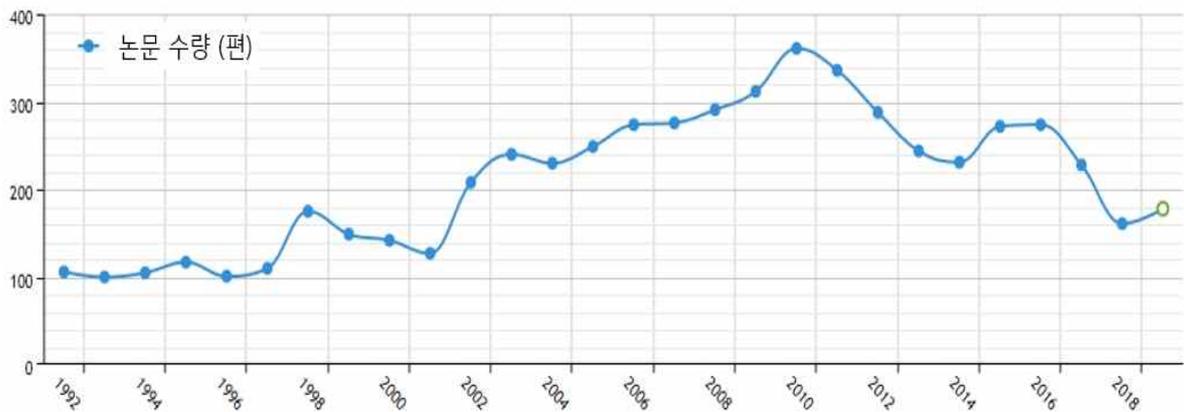
27) 중문 핵심 학술지(中文核心期刊)는 2011년 12월 베이징대학 출판사가 발행한 출판 도서로서, 베이징의 여러 대학 도서관 및 중국과학원 도서관,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센터, 중국인민대학 출판자료센터, 중국학술잡지 전자잡지사,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베이징 완팡(万方) 데이터 주식회사, 국가도서관 등 27개 관련 조직의 전문가와 학술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한편, 중문사회과학인용색인(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CSSCI)은 난징(南京)대학 중국 사회과학 연구평가센터에서 개발한

지로 했다.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5,541편의 관련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을 정점으로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3 참조). 그리고 가장 많은 동남아, 아세안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东南亚纵横》으로 나타났고, 《东南亚研究》와 《南洋问题研究》, 《当代亚太》, 《亚太经济》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东南亚纵横》은 광시(广西)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동남아에 관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그림 4 참고).

또한, 관련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중에서 차오윈화(曹云华)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했고, 왕친(王勤), 왕웨이(韦红), 왕즈창(王子昌), 리홍(李红)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오윈화는 1956년생의 지난(暨南)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겸 화교·화인 연구원의 집행원장으로 《东南亚研究》 학술지(잡지사)의 사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왕친은 사면대학 동남아연구센터 주임이며, 왕웨이는 화중(华中)사범대학 정치와 국제관계학원 교수, 왕즈창은 지난(暨南)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이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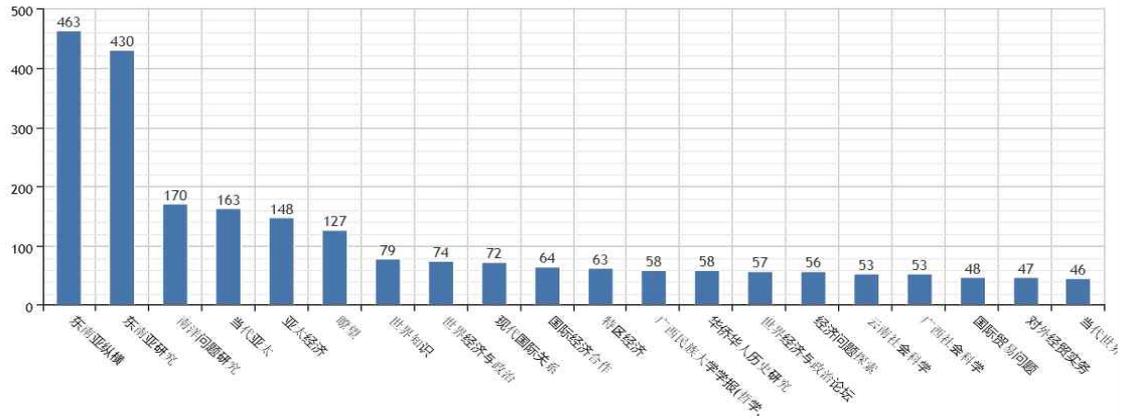
<그림 2> 동남아 또는 아세안에 관한 중국의 연도별 학술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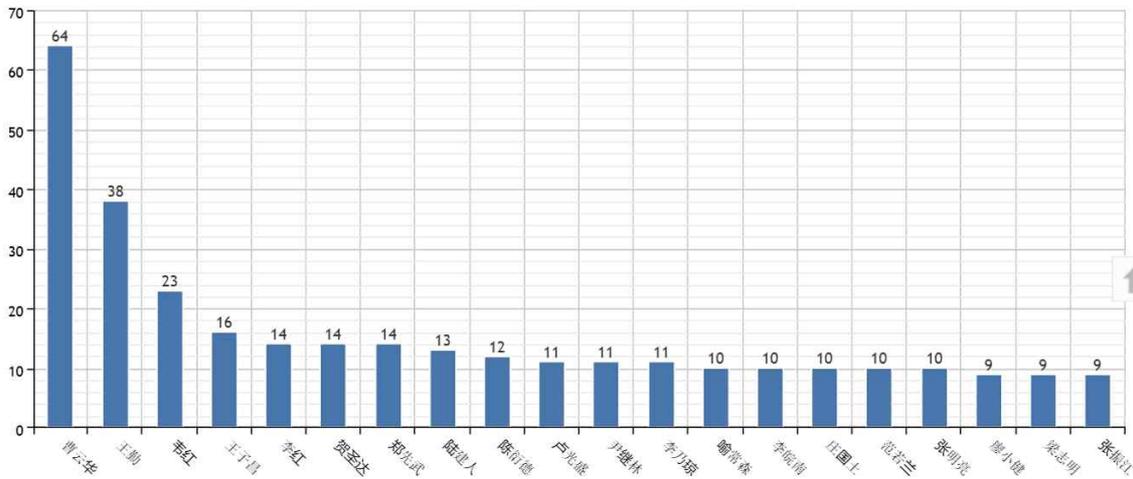
데이터 베이스로서, 중국의 인문·사회과학 평가영역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이 두 가지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특정 학술지의 학술적 평가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8) 언급된 연구자들의 직책은 2019년 4월 1일 현재의 직책임.

<그림 3>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동남아, 아세안 관련 논문 수  
(단위: 편, 1992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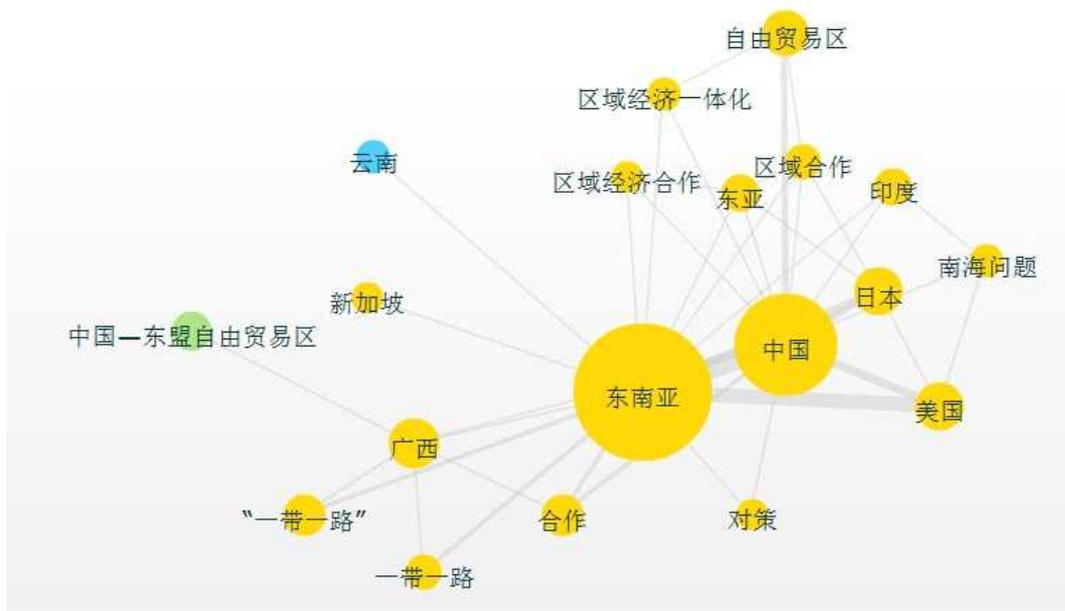
<그림 4> 동남아 또는 아세안에 관한 논문을 집필한 중국의 주요 연구자  
(단위: 편, 1992년~2018년)



한편, 5,541편의 방대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림 5>는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인데,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지역협력’과 ‘지역경제협력’, ‘지역경제 일체화’ 등에 대한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경우,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비교적 새로운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대일로가 광시(广西)라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대일로를 통한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과정에서 광시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협력과 같은 긍정적 주제와는 달리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부정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 문제(南海问题)’도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나 있다. ‘남중국해’라는 노드가 ‘미국’, ‘인도’, ‘일본’ 등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를 동남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인도 등과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중국의 동남아, 아세안 연구에서 나타난 키워드 네트워크



## 2. 연구기관-국가 네트워크

다음으로 중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동남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남아 국가가 중국의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동남아 각국을 키워드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한 후<sup>29)</sup>, 해당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동남아 각 국가를 두 개의 노드로 하는 투-모드(two-mode)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런 다음, 특정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적어도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두 노드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정의한 후, 이를 이진(binary number)의 투-모드 네트워크로 나타냈다. <그림 6>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투-모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고, <표 3>은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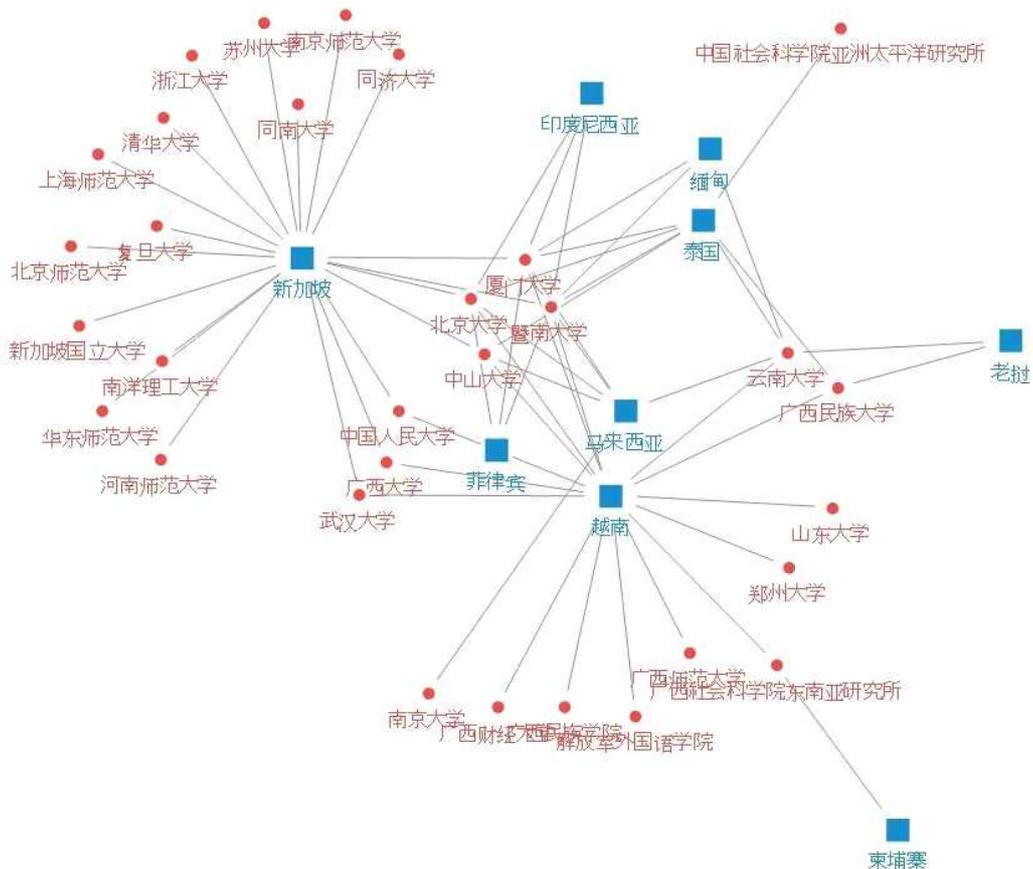
29) 동남아 각국을 키워드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 수는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싱가포르 4,345편, 베트남 3,030편, 태국 2,534편, 말레이시아 2,078편, 인도네시아 1,527편, 필리핀 1,217편, 미얀마 1,165편, 라오스 594편, 캄보디아 479편, 부르나이 111편, 동티모르 81편.

연구를 진행한 중국의 연구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중국의 연구 기관에 의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연구기관 중에서는 지난(暨南)대학과 샤먼(厦門)대학, 베이징(北京)대학 등이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서,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기관과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만을 연구하는 기관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후자의 연구 기관들은 지역적 제한 없이 거의 중국의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전자의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광둥(广东)성과 광시(广西)성, 윈난(云南)성, 푸젠(福建)성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6> 중국의 동남아 연구 기관과 동남아 국가로 구성된 투-모드 네트워크



<표 3> 다양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중국의 연구기관

순위	연구 기관
1	지난(暨南)대학
2	샤먼(厦門)대학
3	베이징(北京)대학
4	윈난(云南)대학
5	중산(中山)대학
6	광시(广西)민족대학
7	광시(广西)대학
8	광시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9	중국인민대학
10	우한(武汉)대학

### 3. 연구영역-국가 네트워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다양한 중국의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연구기관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뤼이푸(罗仪馥)는 국제문제를 다루는 주요 학술지 12개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영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세안에 대한 연구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양국관계 및 화교에 대한 연구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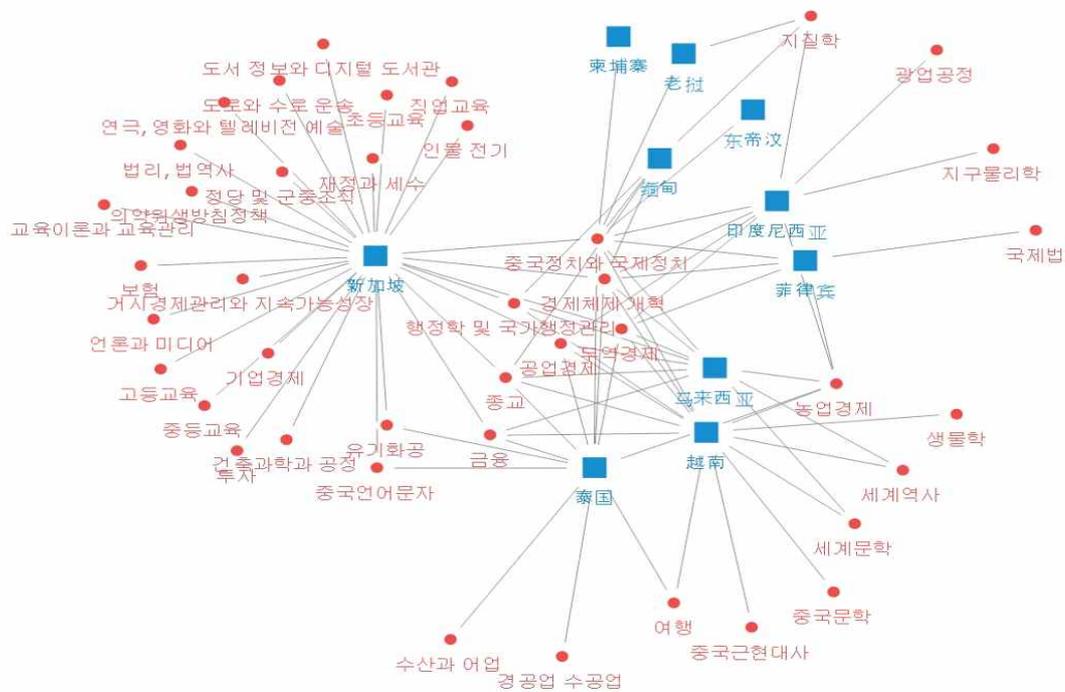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국제문제를 다루는 한정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기간도 2007년에서 2017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만약 특정 국가에 대해 특정한 주제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것이 전체적인 동남아 연구의 경향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 대해 경제학 영역을 중심으로 다량의 연구가 이뤄졌을 경우, 이것이 중국의 동남아 연구가 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왜곡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동남아 국가와 연구 영역(주제)을 두 개의 노드로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국의 동남아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앞 절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각국을 키워드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한 후, 해당 논문의 연구 영역을 집계했다.<sup>30)</sup>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각 국가와 연구 영역(주제)을 두 개의 노드로 하는 투-모드(two-mode)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런 다음, 특정 영역(주제)에 대

해서 적어도 5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국가에 한하여 해당 연구 영역과 해당 국가 사이에 관계가 성립한다고 정의한 후, 이를 이진(binary number)의 투-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했다. <그림 7>은 동남아 국가와 연구 영역의 두 노드로 구성된 투-모드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것이고, <표 4>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 대상이 된 동남아 국가의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그리고 <표 5>는 연구 영역(주제) 중에서 다양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영역(주제)의 순위를 나타낸다.<sup>31)</sup>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다양한 연구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영역에서 있어서는 ‘중국정치와 국제정치’, ‘경제체제 개혁’, ‘무역경제’ 등의 순으로 다양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이는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진 국가일수록 다양한 연구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필리핀(1,217편)에 대한 연구가 미얀마(1,165편)보다 연구 편수는 더 많지만, 주제의 다양성 면에 있어서는 미얀마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통티모르와 부르나이의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7> 동남아 국가와 연구 영역의 두 노드로 구성된 투-모드 네트워크



30) 연구 영역(주제)의 종류는 <CNKI>에서 설정되어 있는 문헌분류목록의 167개 항목을 기준으로 했다.

3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균등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해서 특정 주제로 많이 연구된 것보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역(주제)이 중국의 동남아 연구 경향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된 동남아 국가 순위

순위	국가
1	싱가포르
2	베트남
3	태국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6	미얀마
7	필리핀
8	라오스
9	캄보디아
10	동티모르

<표 5> 다양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영역 순위

순위	연구 영역
1	중국정치와 국제정치
2	경제체제 개혁
3	무역경제
4	공업경제
5	농업경제
6	종교
7	금융
8	행정학 및 국가행정관리
9	지질학
10	세계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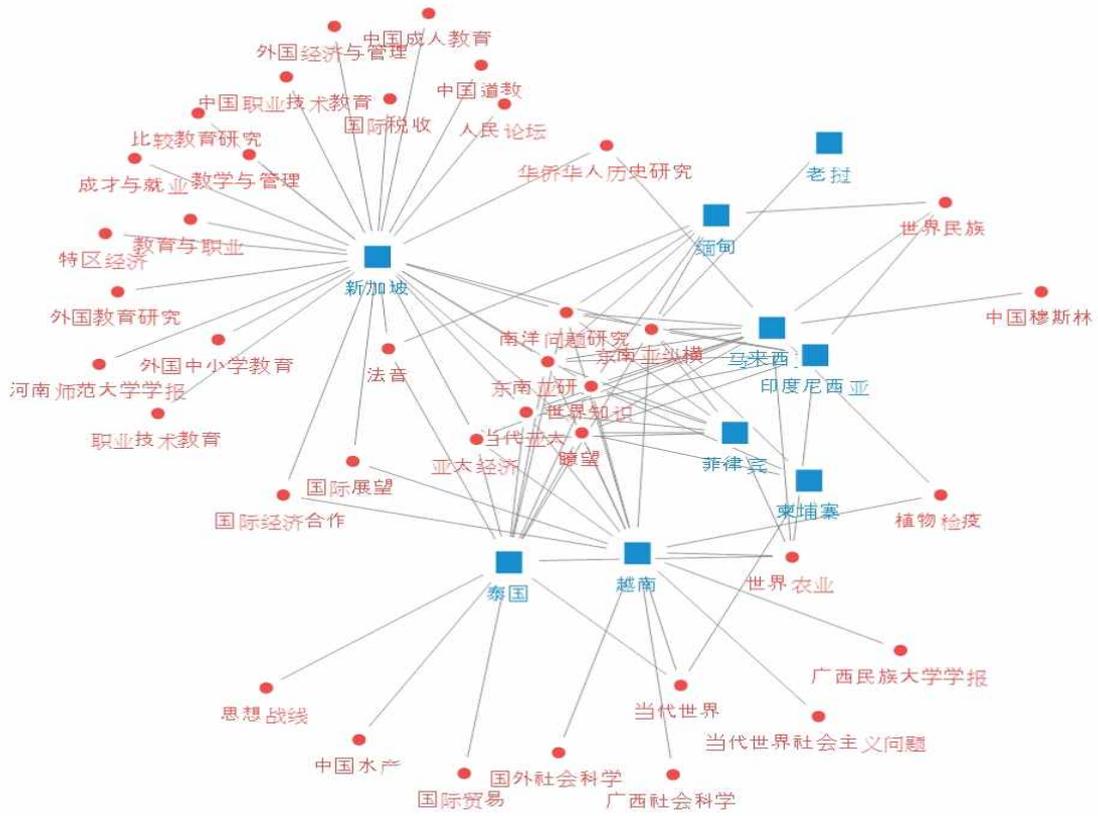
#### 4. 학술지-국가 네트워크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와 학술지를 두 개의 노드로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남아 연구에 있어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를 살펴봤다. <그림 8>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고, <표 6>은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게재된 학술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결과, 《东南亚纵横》, 《东南亚研究》, 《瞭望》, 《南洋问题研究》, 《世界知识》, 《当代亚太》 등의 순으로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이는 립이푸(罗仪馥)의 연구 결과나 아세안에 대해 논문수를 중심으로 산정한 순위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인다(표 6 참고).

가장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논문들이 게재된 《东南亚纵横》은 광시(广西)사회과학원 동남아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이고, 《东南亚研究》는 지난(暨南)대학 동남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이며, 《瞭望》과 《南洋问题研究》는 각각 신화사와 샤먼(厦門)대학 동남아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와 학술지이다. 이들 학술지들이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식 교류의 매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이들 학술지는 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8> 동남아 국가와 학술지를 두 개의 노드로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



<표 6> 각 기준별 중국의 주요 동남아 연구 학술지 순위

순위	뤄이푸(罗仪馥)의 연구 (국제문제 중심)	단순 논문 편수 중심	다양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순위
1	太平洋学报	东南亚纵横	东南亚纵横
2	现代国际关系	东南亚研究	东南亚研究
3	世界经济与政治	南洋问题研究	瞭望
4	东南亚研究	当代亚太	南洋问题研究
5	国际论坛	亚太经济	世界知识
6	国际观察	瞭望	当代亚太
7	国际问题研究	世界知识	世界农业
8	外交评论	世界经济与政治	亚太经济
9	当代亚太	现代国际关系	当代世界
10	南洋问题研究	国际经济合作	法音

## VI. 결론

중국은 시간적, 공간적, 인간적 조건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학계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토대가 되어 주었다.

최근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대해서 그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의 동남아 연구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학술 영역에 걸친 5,541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동남아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빈도 추이 및 주요 연구자, 학술지 등을 살펴봤다.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그동안 어떤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지역협력'과 '지역경제협력', '지역경제 일체화'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고,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이슈 중에서는 '남중국해 문제(南海问题)'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노드로 부각되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각국과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지 및 연구 주제를 노드로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에 대한 지식 교류에 있어 주요한 연구기관 및 연구 영역, 학술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연구기관 중에서는 지난(暨南)대학과 샤먼(厦門)대학, 베이징(北京)대학 등이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다양한 연구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영역에서 있어서는 ‘중국정치와 국제정치’, ‘경제체제 개혁’, ‘무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져 왔다. 또한, 《东南亚纵横》, 《东南亚研究》, 《瞭望》, 《南洋问题研究》, 《世界知识》, 《当代亚太》 등이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지식 교류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동남아 연구 현황은 한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연구 주제도 다원화되고 있는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연구의 범위가 협소하고 축적된 연구의 양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브루나이의 경우, 해방 이후 2018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석·박사 논문이 8편, 학술지 논문이 8편에 불과한 반면<sup>33)</sup>, 중국의 브루나이에 대한 연구는 1992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111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한국의 경우, 한국외대의 동남아연구소와 서강대의 동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동남아시아센터,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등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동남아 연구소는 다수의 대학은 물론,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의 연구 기관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에 아태와 글로벌 전략 연구원(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이 있어 동남아 연구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도 윈난(雲南)사회과학원의 동남아연구소, 광시(廣西)사회과학원의 동남아연구소,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의 아태연구소 등이 있어 정부의 對동남아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책연구기관 중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신남방경제실 정도가 전문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에는 좀 더 많은 동남아 연구 기관이 존재하지만, 연구 자금과 인력 등 연구 역량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학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 강화가 반드시 정부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對동남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의 동남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차후 중국과 한국, 또는 한·중·일 3국의 동남아 연구 비교 등을 통해 한국 학계의 동남아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를 잘 활용하여, 중국의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과 효율적인 지식 교류를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동남아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선희, 「아세안 관련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2012.

---

33) 전제성, 앞의 논문, 11쪽.

- 자오찬성 저, 김태완 역,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연계 접근분석』, 서울: 오름, 2001.
- 김진호, 「중국의 대국굴기와 동남아 화상네트워크의 변화」, 『中國研究』, 제43권, 서울: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8.
- 박사명, 「중국 동남아학의 발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3호, 서울: 한국동남아학회, 2010.
- 이희옥, 「중국의 주변지역전략과 대동남아정책의 새로운 조정」, 『中蘇研究』, 제35권 제2호,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 李道緝,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일전쟁 시기 중국-태국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0호, 서울: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 전제성,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4호, 서울: 한국동남아학회, 2018.
- 戴可來、王介南著., 陳喬之、黃滋生、陳森海編, 「中國十年來對東南亞的研究」,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2.
- 罗仪馥, 「中国的东南亚研究现状(2007-2017年)」, 『战略决策研究』, 第5期, 广东: 广东外语外贸大学, 2018.
- 于向東, 「中國的越南學研究狀況及其思考」,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輯, 鄭州: 鄭州大學, 2005.
- 张小欣, 「新中国东南亚研究机构的创设与变迁(1949-1984): 以厦、中、暨三校为中心」, 『南洋问题研究』, 第2期, 福建: 厦门大学南洋研究院, 2017.
- 陳喬之著., 陳喬之、黃滋生、陳森海編, 「對我國東南亞研究的認識」,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2.
- 唐世平·张洁, 「中国东南亚研究现状: 制度化阐释」, 『当代亚太』, 第4期, 北京: 中国社会科学院亚洲太平洋研究所, 2006.
- Jae ho Chung, "East Asia's Responses to China's Rise", Pacific Affair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ol.82, No.4, 2009.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검색일: 2019년 2월 13일.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national/national02Page.do> 검색일: 2019년 2월 13일.